

# 공중 공연·불꽃쇼...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의 거리극

내달 2~4일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문화전당, 5·18민주광장, 금남로 일대  
국내외 16개팀 "새로운 세계 보여줄 것"

첫날 시민 퍼레이드 '축제를 위한 행진'  
개막작 아르헨티나 극단 공중퍼포먼스  
폐막공연 스페인 극단 '마법의 밤' 무대



6월2일 금남로 거리퍼레이드에서 펼쳐지는 장승굿 모습.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가 공동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ACC광주프린지 인터내셔널'이 오는 6월 2~4일 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다.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수택 총감독은 "기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광주 공연팀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이번 행사는 국내외 순수거리극단으로 꾸러진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의 거리극'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6개국 6개팀을 비롯해 국내 10개팀이 참여한다. 또 다양한 부대·협력행사 등이 곁들여지며 출연진만도 3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거리축제다.

광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리극축제인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 정신을 충실하게 구현한 작품들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축제 첫날에는 사전 모집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 '축제를 위한 행진'이 눈에 띈다.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금남공원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한다. 공동체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 5·18광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높이 6m 장승을 앞세우고 각 구간별로 흥과 불, 불을 이용한 정화의례를 한다.

도착지에서는 한국 풍물패 외에 스페인 발렌시아 전통음악과 갖가지 동물 형상 인형들이 장승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기뻐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따라가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장승은 축제 이후 문빈정사에 설치할 예정이다.

임 감독은 개막작인 아르헨티나 극단 '보알라'의 '보알라 정거장'과 폐막공연인 스페인 극단 '작사'의 '마법의 밤'은 꼭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알라 정거장'(2~3일 오후 8시 분수대 옆 무대)는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공중 퍼포먼스다. 줄에 매달린 13명의 출연진은 출장을 갔다 막차를 놓친 회사원들의 이야기를 독창적인 음악과 몸짓으로 표현한다.

'마법의 밤'(3일 밤 9시, 4일 오후 8시)은 광장과 금남공원을 오가며 진행하는 이동형 거리극이다. 1983년 창단한 스페인 대표 야외극 전문단체 '작사'가 고대 발렌시아 축제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화려한 불꽃을 활용한 공연을 펼친다.  
다른 해외초청작도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무대를 보여준다.

호주극단 '하어엔나우'는 환경오염을 이야기한다. 3일 오후 4시30분, 4일 오후 4시30분·7시 차례 서커스 공연 '희망?'을 공연한다. 아슬아슬한 몸짓은 지구 종말과 인간 추악함을 의미한다.

태국 '비-플로어'팀의 '붉은 탱크'(3일 오후 6시30분, 4일 오후 7시)는 겹겹이 쌓인 빨간 드럼통을 넘나드는 한 남자의 처절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탱크를 빨간 드럼통에 비유하며 직접적으로 사회와 현실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그밖에 걸과 속이 다른 현대인을 꼬집는 일본 극단 '실부플레'의 '우스꽝스러운 테니스클럽'(2일 오후 5시·6시30분·3일 오후 3시30분·6시, 4일 오후 3시30분·6시), 무용과 연극 서커스를 결합한 프랑스 '이판'의 '침묵 속의 외침'(3~4일 오후 4시·6시30분)을 감상할 수 있다.

국내팀들도 해외팀 못지 않는 현란한 공연을 준비한다.

'장작중심 단다'팀은 금남로 한국투자증권건물이 무대다. 동명의 피카소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공연 '꽃과 여인'은 4명의 무용수가 공중에 매달려 건물 외벽을 캔버스 삼아 그림속 장면을 연출한다.

설치미술도 선보인다. 연기백 작가는 전당 주변에 장작불 55개를 설치하는 '탄.탄.탄'을 작업한다. 원시적 생존 조건인 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시민인터뷰 영상을 함께 상영한다. 김정은 작가는 어린이문화원 인근 천막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꾸민 '게으름의 낭만'을 설치한다.

부대행사로 2일 밤 9시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는 5·18광장에서 '무등산 민족통일대동장승굿 전야한마당'을 펼치고 3~4일 오후 5시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공연팀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교류협력공연이 열린다.

4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는 '왜 거리예술인가?'를 주제로 거리토론회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01-492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르헨티나 극단 '보알라'의 공중퍼포먼스 '보알라 정거장'.



화려한 불꽃을 이용하는 스페인 '작사'팀의 '마법의 밤'.

## 조각가 최순임 개인전 내달 1일~10일 양림미술관

조각을 통해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최순임 작가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I have a dream'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점토, 브론즈 등으로 인물과 동물을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작품 '꿈꾸는 여행자'는 허구의 어린이 '모리'와 고양이 소제다. 모리는 숲의 일꾼이 발음이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유독 피아를 만나길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여행자'도 고양이를 소재로 삼았다. 잔뜩 웅크린 고양이 모습은 외로움과 불안을 형상화했다. 삶을 여행으로 보고 아름다운 여행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전시장에서는 '고양이에게 길을 묻다'라는 글을 나레

이션으로 들려주며 인생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밖에 '꿈꾸는 회전목마'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회전목마의 데드히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동경의 세계로 탈출하길 바라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다.

최씨는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개인전 14회를 가졌다. 올해 일본 레타라갤러리 '2+2=2.2x2=2', 201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 단체전 100여회에 참여했고,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광주시 문화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675-70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꿈꾸는 회전목마'

## 담양문화회관 뮤지컬 '백진강 흰 여울이야기' 공연...30일·31일·6월1일

창작 뮤지컬 '백진강 흰 여울이야기'가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된다. 30일(오후 7시), 31일·6월 1일(오후 4시, 오후 7시) 모두 다섯 차례 공연되는 이번 뮤지컬은 소설, 수필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담양 출신 실재작가의 소설 '백진강 전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관방천의 다른 이름인 백진강의 하류 동정자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바우와 여울이를 통해 인간과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선보인 창작 뮤지컬 '소쇄원에서 꿈을 꾸다'에서부터 '백진강, 흰 여울이야기' 등 담양 지명 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제2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지역 고유 문화, 역사적 인물, 전해져 오는 이야기 등을 배경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해 담양 신 르네상스 시대를 꽃 피울 것"이라고 밝혔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1-380-280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